

출 장 결 과 보 고 서

제13차 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식품전망회의(PECC/PFSO) 참석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2009. 5. 1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글로벌협력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어 명근

1. 출장지역: 미국 워싱턴 D.C.

2. 출장기간: 2009. 5. 13 - 16 (4일간)

3. 출장 일정

- 2009년 5월 13일(수): 이동 및 PFSO 회의 참석
 - 주제: 세계 경제 위기와 역내 식량수급 시스템
- 5월 14일(목): PFSO 회의 계속
 - 주제: 세계 금융위기가 식량수급 시스템에 미친 영향과 향후 전망
 - 국별 사례 발표
 - 토론 및 결론
- 5월 15일(금)~16일(토): 이동

4. 출장 결과: 제13차 태평양식품전망(PFSO) 회의 개요

- 5월 13일 오후 PFSO 회의 개요
 - Bill Liefert(USDA/ERS): 지난 2008년 시작된 세계적인 위기는 식품위기, 에너지위기, 금융위기, 그리고 경제위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음. 그리고 최근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면서 위기가 진정 기미를 보이는 것은 바로 금융위기와 경제위기가 촉발한 불경기로 인해 이들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탓으로 분석됨.
PECC 역내 회원국 가운데 선진국들은 식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성치가 낮아 식품 수급 시스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음. 또한 농업생산자들은 자국 통화가치가 하락(depreciation)하는 경우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었음.

이번 위기로 인해 각국의 농산물 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다
음과 같이 감소하였음; 필리핀: 쌀 수입 96%, 중국: 대두
59%, 멕시코 옥수수 32%, 한국 돼지고기 23% 등.

- Paul Ellinger(Univ. of Illinois): 이번 경제 위기는 지렛대 상
승작용(leverage by leverage)으로 인해 위기가 확산되는 특
징을 보이고 있음. 2008년 말 현재 미국 농가 부채 총액은
2,150억 달러로 추산됨.

- Xiaobo Zhang(IFPRI): 경제 위기가 식량 수급에 미친 영향
은 국내외적으로 다양하며 품목별로도 다르게 나타났음. 중
국은 식량기근을 경험한 탓에 주식인 쌀과 밀의 자급 목표
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국무원은 2008년 세계 곡물가격 상승이 시작된 이래 쌀과
밀의 재고 방출, 생산보조금 지불, 수출 규제 등에 관한 수
십 건의 규정을 선포할 정도로 식량안보에 민감하게 반응하
고 있음. 그 결과 4대 곡물류 경작면적은 늘어났음.

향후 중국의 식량안보는 경지면적 감소와 인건비 상승 용
수 문제 등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예상되는 세계
곡물가격 상승에 대비하여 자급률 유지에 정책적 우선순위
를 두고 있음.

○ 5월 14일 PFSO 회의 개요

- Will Martin(World Bank): "Impacts on poverty, food
security and rural prosperity in developing countries"

1983년 이래 밀과 쌀, 옥수수 등 곡물 가격은 급격하게 상
승하였음. 식량가격 상승은 도시민보다 농촌 주민을 더욱 빈

곤하게 만들었음. 특히 앵겔계수가 70%를 넘는 개도국 농촌 주민들은 고곡가로 인한 이득은 많지 않은 반면 곡물 수입에 따른 피해를 받았음.

빈곤율을 “하루 생계비 1달러”라는 세계은행(WB)의 기준을 적용하여 캄보디아 베트남, 페루, 파키스탄, 볼리비아 등 10개국에서 주곡 가격이 10% 올랐을 때 도시와 농촌의 빈곤율 변화를 추정한 결과 니카라과를 제외한 9개국은 농촌 빈곤율이 도시보다 높아졌음. 또한 전체 빈곤율은 국가와 품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베트남에서는 쌀 값 상승에 따라 농촌 빈곤율은 개선된 반면 도시 빈곤율은 높아졌음.

경제정책적 시사점은 첫째, 주곡의 가격 상승으로 저소득 국가의 빈곤층이 많아졌음.

둘째, 시장보호는 일반적으로 자급률은 높이지만 식량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음.

셋째, 가격절연(price insulation)은 개별 국가의 가격안정에는 도움이 되지만 세계 전체의 식량공급 불안을 증가시킴. 식량안보는 자급률 향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식량에 대한 국민(특히 빈곤층 국민)들의 접근성(accessibility)을 향상시킬 때 달성 가능함.

넷째, 전 국민을 위해 곡물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것보다 시장개방을 통해 가격을 낮게 유지하면서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사회안전망(safety-net) 정책이 효과적임.

다섯째, 식량 증산을 위한 품종과 재배기술 등 연구개발 투자와 생산기반시설 투자 증대가 바람직함.

- 국별 경험과 사례 발표;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대만, 일본, 한국, 호주, 캐나다 순으로 국별 사례 발표.

5. 평가 및 제안

- 지난 해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곡물가격 급등은 태평양지역 회원국들의 식품수급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금융 위기가 식품시스템에 미친 영향의 크기와 형태는 국별로 상이하여 정부의 대응도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음.
- 특히 주곡의 자급률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출입국간에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음.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 쌀을 주식으로 하는 국가들은 주곡의 높은 자급률 덕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으므로 자급률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캐나다와 호주 등 곡물 수출국들은 자급률 유지가 세계 전체 식량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시장개방과 무역 증대를 통해 소득을 향상시킴으로써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식량안보를 식량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으로만 파악하는 행태에 대응하여 세계적인 기상악화 등으로 인한 생산 감소 또는 수출국의 수출규제 등 공급측면에서의 충격으로 식량의 가용성(Availability) 자체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곡의 자급률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것은 수입국으로서 불가피한 일임을 강조하였음. 아울러 역내 회원국간 공동 대응방안으로 주요 곡물류 생산과 가격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관찰과 경보체계(Monitoring system) 구축을 제안하였음.

* 별송: 발표 자료(파워포인트) 사본 1부.

- 이 상 -